

불교유물 불모지 군산에 국보급 문화재 돌아왔다

대구 고미술가, 성흥사에 삼존불 등 유물 15점 기증

불교관련 지정문화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군산의 한 사찰에 백제 관음보살상과 쌍사자 석등 등 국보급 성보문화재 15점이 한꺼번에 모셔져 화제다.

화제의 사찰은 군산 성흥사(주지 송철)다. 성흥사는 개산 162주년을 맞아 11월 2일 소장하고 있는 성보문화재를 일반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성보문화재는 고려 청동관음보살 삼존불(1010년), 백제 관음보살상(7세기), 금동여래불입상(8세기), 쌍사자석등(9세기), 금동 9층불탑(고려시대), 금동금강저(13세기), 금동반가사유상(15세기), 청동

범종(조선시대) 등이다.

이 유물 가운데 청동관음보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물은 대구에 거주하는 고미술 전문가 유성철 씨가 기증했다.

이날 유성철 씨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구입한 청동관음보살 입상의 명문을 연구하던 중 예전에 성흥사에 소장된 삼존불 가운데 한분임을 발견하고 가족회의를 거쳐 기증을 결정했다”며 “군산지역에 불교 유물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성보문화재를 함께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씨가 기증한 불교유물 가운데는 국보

247호 공주의당금동보살입상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관음보살상과 토지박물관에 소장된 금동 9층불탑과 쌍을 이루는 불탑, 통일신라시대 석등, 삼국시대 금동여래불입상 등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희귀한 성보문화재가 포함돼 있다.

또한 일부 유물은 공주대로부터 성분분 석 등 과학적인 감정을 거쳐 백제, 통일신라시대 유물로 추정된다는 판정을 받기도 해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흥사 주지 송철 스님은 “유물은 전문 기관에 감정 의뢰해 지정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성보박물관을 건립해 진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준엽 기자



우리차 문화 한자리서 체험 해남 대흥사 초의문화재 성황

다성(茶聖) 초의선사를 기리고 우리차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제15회 초의문화제가 11월 4-5일 양일간 해남 대흥사주지 몽산과 일지진, 해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사진).

초의문화제 집행위원회는 4일 일지진에서 초의선사 열반 140주년 추모제를 시작으로 조사다례, 육법공양, 초의상 시상, 서예대회 등을 개최했다.

초의문화제가 열린 대흥사 경내에는 들차회, 컵등 만들기, 서각, 어린이 차 문화교실, 도자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졌으며 부대행사로 차음식 한마당, 도자기 작품 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대흥사 성보박물관 앞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불교전통문화원장 석혜 스님과 한국차문화협회 수석부회장 최유련 씨를 초의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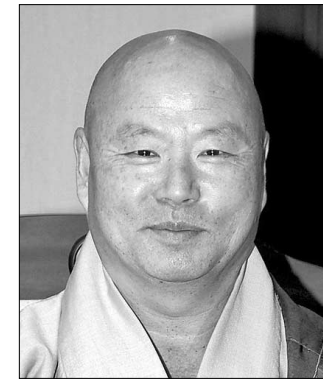
이어 대흥사는 초의문화제예제를 개최했다. ‘산사의 울림, 소리의 향연’을 주제로 열린 이번 예제는 원형 테이블에서 우리 차를 마시며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은 “해마다 열리는 초의문화제를 통해 우리차를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차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수행 가풍 살려 포교 주력”

interview 백양사 신임 주지 성오 스님



“밥을 굶을지언정 포교는 굶지 않겠습니다”

11월 20일 고불총림 백양사 대웅전에서 주지 진산식을 여는 성오(사진) 스님은 “수행가풍을 되살려 수행과 포교가 어우러진 총림이 되도록 대중과 가깝고 화에 힘쓰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성오 스님은 “백양사는 근대들어 환

이를 위해 스님은 “강원에도 전통 불교 의식과 현대 포교를 강화해 포교 선봉장 배출을 위한 ‘전천후 강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화루’를 ‘작은 도서관’으로 바꾸어 백양사를 참배하는 이는 누구나 차를 마시며 쉬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편안하고 다시 찾는 백양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오 스님은 1959년 봉하 스님은 은사로 출가, 백양사 승가대와 광주대,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다. 조계종 11대·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전남 지방경찰청 경승, 광주 광산불교협회회장을 맡고 있다.

2004년, 광주 광산구 신사가지에 도심포교당 마하보리사를 창건해 지역포교에 앞장서 왔다.

이준엽 기자

열린 증무행정 추진 ‘우화루’ 참배객 쉼터로

“방장스님과 문중 어른스님을 중심으로 화합, 열린 증무행정, 포교강화”를 3대 목표로 제시한 성오 스님은 “종무회의에 총무, 포교, 재무 등 7직 소임을 맡은 선원장, 강주, 율주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열린 증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성오 스님은 “참여하는 증무행정으로 내적으로는 총림의 위상을 구축하고, 외적으로는 사중의 역할을 하나로 모아 포교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interview 유성철씨

‘성보박물관 건립 희망’ ... 추가 기증 약속

“백제 관음보살상과 탑을 백제땅에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부처님 공덕으로 영, 호남이 더불어 잘사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달, 군산 성흥사에 백제 관음보살



상과 금동 9층불탑 등 국보급 성보문화재 15점을 기증한 고미술 전문가 유성철(47·사진) 씨는 “성보문화재가 전무하다시피 한 군산지역에 성흥사 불교유물은 지역민들에게 불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해 우연히 수집한 청동관음보살상이 성흥사에 소장되었던 관음보살 삼존불의 하나임을 발견하고 유물

을 기증하게 됐다”며 “문화재 감정을 거쳐 군산에 불교성보박물관이 건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군산은 일제 때 일본인에 의해 수많은 문화재가 수탈당해 불교유물이 거의 없는 불교유물 불모지로 알려져 있다”며 “성흥사에 성보박물관이 건립되면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백제관련 유물을 더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엽 기자

니르바나 불교사진전 개최 광주 덕림사, 시왕재 봉행

광주 덕림사(주지 무이)가 개최한 제1회 니르바나 불교사진 공모전에서 운영자(서울)가 출품한 ‘바라춤’이 영예의 금상을 수상했다.



국전초대작가는 심사평에서 “첫 대회였지만 전국에서 고품위 참석해 전국대회의 면모를 보여줬다”며 “다양한 소재와 독창성 높은 작품들이 많아 전시장에서 불교문화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덕림사는 명부전에서 시왕을 통해 업장참회와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제2회 시왕재’를 봉행하고 불교예술축제 한마당을 펼쳤다(사진).

이준엽 기자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훈련소 군악대, 우송대 소울리즈, 오카리아너주단, 소프라노 민진기씨, 테너 박용기씨 등이 출연해 공연을 축하했다.

진각종 대전교구청장 휴명 정사는 “울츠렸던 마음을 열고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마음으로 올 겨울을 맞자”고 격려했다.

이날 음악회에서 모금된 성금은 전액 용문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됐다.

혜철 대전 총복 이사장

전남도청불자회 창립 5주년

전남도청 공무원 불자회는 10월 30일 창립 5주년을 맞아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백양사 주지 성오,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 등 도내 각 사암 스님과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송광사 회주 법흥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정정하고 깨끗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물러섬 없는 용맹심으로 지역발전과 포교를 위해 실천하는 직장 불교인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청불자회를 대표해 문정금 불자는 발원문에서 “게으름 없는 정진과 자비심으로 도장을 수행하고, 일하면서 부딪치는 고뇌는 부처님 해안으로 녹여져 궁극에는 전남발전과 나아가 나라가 편안해지기를 기원”했다.

한편 전남도청불자회는 70여명의 회원



이 정기법회와 사찰참배를 통해 신생활을 펼치고 있으며 무안, 강진, 해남 등 지역 시·군청 불자회와 연합법회를 갖고 있다.

이준엽 기자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덕림사는 11월 5일 사진공모전 시상식을 갖고 금상, 특별상 등 수상작을 선정해 시상하고 격려했다.

불교사진 전시회를 겸해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무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에서 200여명의 사진애호가들이 600여점의 작품을 출품해 불교사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며 “정적인 사진의 우수성을 통해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해 매년 불교사진전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진전 심사위원장을 맡은 강봉규

‘가을밤의 음악여행’ 자선음악회
진각종 대전교구청 심인합창단

진각종 대전교구청 심인합창단(단장 일상주)은 11월 2일 대전 연정국악원에서 ‘가을밤의 음악여행’ 자선음악회를 열었다(사진).

진각종 총금강회 대전지부와 진각복지재단 대전지부가 주최한 음악회는 300여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과도 특별찬경 보급!!

법요집

- 삼귀의
- 찬양합니다
- 반야심경
- 입정
- 청법가
- 법문
- 정근
- 발원 및 축원
- 사중서원
- 산회가
- 기타찬불가

기초교리

- 1. 불교란?
- 2. 부처란?
-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 5. 사찰경내 예법
- 6. 향장과 반배
- 7. 고두례
- 8. 예불문
- 9. 삼보
- 10. 삼귀의
- 11. 삼보인
- 12. 삼업
- 13. 삼학
- 14. 신도요계
- 15. 사성제
- 16. 사성법
- 17. 십이인연
- 18. 육바라밀
- 19. 팔정도
- 20. 보왕심매론

· 특별보급가: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저크지

· 구성: 과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화엄회 종책자료집 배포

종책자료집 1

종책자료집 2

울 3월과 9월, 화엄회 세미나 개최와 아울러 종책자료집 1권과 2권을 간행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자료집 요청이 끊임없이 쇄도하였기에, 화엄회에서는 종책자료집 1권과 2권을 재판(再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포교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화엄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집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화엄회는 앞으로도 종책 개발과 입안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화엄회 자료집 요청 문의

사무국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2-2 은정빌딩 6층

전화 02)515-9351 팩스 02)518-8998

대한불교 조계종 화엄회